

# 2026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6.1.27.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6/10	5	2	13	○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김욱 위원장, 이섭교 위원, 정성일 위원,  
문선혜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재우 경영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김학철 기획제작부장, 이재근 실무담당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3	3	-	1	7	-	7

###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7	-	-	7

### 다. 전월(12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b>&lt;김밥 프랜차이즈 관련 보도&gt;</b> 김밥 프랜차이즈 문제를 보도하면서 다른 프랜차이즈 문제까지 다루고 정부차원의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본사의 해명과 상생의 의지도 들었음. 양쪽의 입장을 공평하게 다뤄주길 바라고 지속적인 관찰 보도도 필요해 보임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프랜차이즈쪽의 의견도 같이 담아서 보도했음. 프랜차이즈쪽에서 기행점들과 상생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정리된 데 향후 어떻게 구체화될지 추후 보도를 이어갈 예정임 <b>&lt;26. 1월 조치&gt;</b>	'25.12월
보도	<b>&lt;송전선로 관련 보도&gt;</b> 초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충남지역은 고오염도 발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음. 초고압 송전선로의 위험성에 대한 심층 보도를 해주기 바람.	송전선로 문제는 에너지 분산 정책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맞물려서 검토해야 할 지점인데 기자들과 추가 취재 여부를 논의해 보겠음. <b>&lt;26. 1월 조치&gt;</b>	'25.12월
보도	<b>&lt;태안화력 관련 보도&gt;</b> 태안화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보도하고 있음에도 이번 달에 또 사고가 났음. 협력사 직원 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좀 더 강력한 심층 보도가 필요해 보임.	태안화력 모기업인 한국서부발전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3년 동안 안전관리에 2조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음. <b>&lt;26. 1월 조치&gt;</b>	'25.12월
보도	<b>&lt;독립기념관장 관련 보도&gt;</b> 독립기념관장 문제는 대전MBC가 오랫동안 보도해 오고 있는데 문제 해결의 끝이 거의 다 온 것 같음. 끝까지 보도를 잘 해 주기 바람.	독립기념관장 관련해서는 보존부의 감사 결과가 통보됐고 이의제기 신청기간이 다음 달 초에 끝나게 됨. 이사회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임. <b>&lt;26. 1월 조치&gt;</b>	'25.12월
보도	<b>&lt;대리기사 사망사건 관련 보도&gt;</b> 대리기사 사망사건을 보도하면서 다른 대리기사의 피해사례도 같이 보도해 주었음. 기사와 손님간에 갈등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데 이 부분도 잘 다뤄주길 바람.	대리기사 사망사건 보도는 시간상 급박하게 보도를 했지만 기자들의 순발력이 좋아서 제도적인 문제까지 짚어서 보도했음.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b>&lt;26. 1월 조치&gt;</b>	'25.12월
보도	<b>&lt;행정통합 관련 보도&gt;</b> 행정통합 이슈에 대해 꾸준히 다뤄주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고 지역민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집이나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다뤄주길 바람.	내년 2-3월에 특별 법안이 마련되고 그 사이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데 공론화 과정에서 토론 기회가 있다면 제작할 예정임. <b>&lt;26. 1월 조치&gt;</b>	'25.12월
교양	<b>&lt;인생나잇 출연자 관련&gt;</b> 전정환 문화기획자와 이광복 화가 편을 보면서 지역성과 함께 삶의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을 함.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보면서 시청자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확장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음	최근에 문화와 관련된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비슷비슷한 이야기들로 반복되는 느낌이 들었음. 가능하면 지역을 확대해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는 방법도 고민하겠음. <b>&lt;26. 1월 조치&gt;</b>	'25.12월
교양	<b>&lt;더 페퍼스 관련 &gt;</b> 후반부로 갈수록 K-POP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되었는데 매운맛에 대한 주제가 희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초반에 4부에 대한 기획 의도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음.	7개국의 방대한 이야기를 4부작으로 펼쳐놓다 보니 논리적 연결고리가 약할 수 밖에 없었는데 K푸드에 대한 관심을 매운맛으로 연결시키는데도 논리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었음 <b>&lt;의견 수용&gt;</b>	'25.12월
교양	<b>&lt;연중캠페인 관련&gt;</b> 12월에 연중캠페인 <당신은 000입니다>에서 평생교육원 강사분의 얘기를 통해 한 사람 한사람이 귀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줘서 좋았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올려주기 바람	'당신이 한 줄기 빛입니다'라는 주제로 한빛대상 수상자들에 대한 캠페인을 4편을 만들어서 12월에 방송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바로 올릴 예정이고, 내년에도 시리즈로 잘 연결해서 진행할 예정임 <b>&lt;26. 1월 조치&gt;</b>	'25.12월
기타	<b>&lt;'아나왓슈' 제작 관련 &gt;</b> 유튜브 채널에서 아나운서가 출연하는 '아나왓슈'를 봤는데 이런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역밀착형으로 꾸준히 제작해 주길 바람	내년초에 보도국내 디지털콘텐츠들이 신설되고, 아나운서들이 '아나왓슈'를 통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서 그걸 새로운 콘텐츠 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b>&lt;26. 1월 조치&gt;</b>	'25.1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6년 1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임기)
위원장	김 옥	배재대학교 총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문화단체	25.5.1~27.4.30
부위원장	백강희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가족심터 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5.1~26.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5.1~26.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	민주노동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5.1~26.4.30
위원	문선혜	전연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5.1~27.4.30
위원	박은숙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문화단체	25.5.1~27.4.30
위원	이현욱	우송대 글로벌미디어학과 교수	한국영화교육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최승인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소외계층대변	25.5.1~27.4.30
위원	조원희	(주)지란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	25.5.1~27.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보도> 대전충남 통합이슈 관련 보도를 보면 정치권 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음.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혜택들이 돌아가는지, 주거, 복지, 명칭 문제 등 시청자의 입장에서 취재해 주기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충남 에너지 문제 개선 관련 보도> 새로운 에너지와 저탄소 에너지는 수도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은 우리 지역을 통과해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가 이슈가 되고 있음. 최근 에너지 식민지 관련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다뤄보면 어떨지?	회의록 첨부	○		
보도	<교육 관련 보도> 대전에 교육 비용이 세종보다 두 세배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음. 작년에 보도했던 교육청 해법들이 잘 해결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함	회의록 첨부	○		
교양	<기상캐스터 의상 관련> 겨울철에 화사한 건 좋지만 진행자들은 모두 겨울옷을 입었는데 기상캐스터만 약간 동떨어진 느낌의 옷을 입었음. 어떤 콘셉트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음	회의록 첨부	○		
교양	<특파민 코너 관련> 특파민 코너에서 평균연령 70세인 15분이 봉사를 나가는 '상록 마술 봉사단'을 봤는데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시니어 봉사단체들도 많을 텐데 다른 코너에서도 소개해 주기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문화나들이 관련>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연극제 3관왕을 수상한 연극 '검은 얼룩'을 소개해 주었는데 지인들에게 소개해주는 계기가 됨. 지역 소식을 더 많이 소개해 주기 바람	회의록 첨부	○		
기타	<홈페이지 다시보기 자막> <시시각각> 홈페이지 다시보기를 보면 타이틀 자막이 있는데 '인공지능법..' 편이 '인공지능법...'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음. 수정이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 2026년 1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6년 1월 27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6명)  
김옥 위원장, 이섭교 위원, 정성일 위원,  
문선혜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재우 경영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김학철 기획제작부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 이재우 경영국장

오늘은 위원님 10분 중에 6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연말연시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2건, 용어사용 관련 1건, UHD 화면 관련 1건, 기타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 진종재 사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뜻하시는 것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다른 날과 달리 낮에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고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 이재우 경영국장

이번에는 시청자 위원을 대표해서 김옥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신 후에 이어서 정기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김옥 위원장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님들이 오늘 참석을 많이 못하셨는데요. 평소보다 출석을 이 조금 낮습니다만 좋은 의견 많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MBC 식구들도 새해에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문선혜 위원님부터 먼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문선혜 위원

<시시각각> 관련해서 간단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다시보기를 보면 해당 회차 타이틀이 자막으로 달려 있는데요. ‘인공지능법 시행...파장은?’ 편이 ‘인공지능법...’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리고요. 이번 달에 유의미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지역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대전 충남 통합 이슈인데 <시시각각>에서 굉장히 긴 호흡으로 시리즈처럼 다루주고 계시더라고요. 각 분야에서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긴 호흡으로 깊이 있는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고, 지난달에도 <아나왔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솜씨가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젊은 세대한테는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솜포 노출에 대한 효과나 그에 대한 피드백이 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는데 지금 다양한 콘텐츠가 많아지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김옥 위원장

문선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성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정성일 위원

지난달에도 대전MBC 뉴스와 프로그램을 잘 봤습니다. 이번 달 가장 큰 이슈는 통합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갈등들도 비춰지고 하는데 저는 이런 갈등의 과정이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다양하게 다루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권에 많이 집중돼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시청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더 담아낼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기획 리포트에서 태안발전소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고 그 원인을 밝혀나가는 보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그 이후에 서부발전이 안전 예산 2조 원을 편성하고,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불법 파견 노동자 1,2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실질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갖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당진 철강공장에서 산업 재해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정부 차원에서 나왔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잘 지켜지고 또 이행이 잘 되는지 까지 감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남 지역은 최근 송전선로 문제도 있고 고탄소를 발생시키는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이슈도 있는데요. 이번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중단한 것에 대한 기사가 나갔고 그 이후에 고용 문제도

함께 다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양상 자체가 과거에 더럽게 에너지를 만드는 곳은 충남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에너지라든지 저탄소 에너지는 수도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충청남도나 대전을 통과해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 선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통합도 지역 소멸을 막고자 나온 의견인데 흘러가는 구조가 지역 소멸을 더 부추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우리가 대전 충남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식민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 일자리가 사라진 부분, 또 에너지가 이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해임안이 통과돼서 대통령 재가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MBC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아마 다른 언론사보다 대전MBC에서 가장 많이 보도하고 다양한 관련 문제를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늦었지만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희생됐던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이 7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고유제가 있었는데요. 현장에 TJB와 KBS는 있었는데 MBC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제보 영상을 통해 보도해 주셔서 영상을 잘 봤습니다. 그 이후에 골령골에서 학살당했던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하나하나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지역 역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 교복 관련 보도를 살짝 기대했었는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중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교복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세종에 사는 같은 학년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교복 비용이 두세 배 더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답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2월에 대전MBC에서 보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복 업체 카르텔 문제를 앵커 대담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교복 가격 성적표' 로 보도했고, 그 이후 작년 8월쯤 교육청에서 해법을 제시했던 걸로 아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해결된 건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주변에 학부모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들을 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 보도를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옥 위원장

정성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섭교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섭교 위원

1월에 <오늘M>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 시간대 타사 프로그램은 <생생 정보통>인데 시청

률이 높은 황금 시간대라서 수요일, 목요일에는 <오늘M>도 같이 봤습니다.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동호회나 클럽 운영 등에 관한 코너 위주로 나왔고, 목요일에는 여행 정보나 당일 현장을 연결시킨 현장 중계와 문화나들이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1월 7일에는 윤희영 기상캐스터가 봄옷을 입고 나와서 기상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겨울철에 화사한 건 좋지만 진행자들은 모두 겨울옷을 입었는데 기상캐스터만 약간 동떨어진 느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봄 같은 겨울인가 어떤 콘셉트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았던 건 은퇴한 공직자들의 유성구 노은동 '상록 마술 봉사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평균연령이 70세인 15분이 마술 2급 지도자 과정을 거쳐서 봉사를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시니어에 관심이 많은데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들을 부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대 분들이 봉사 단체라는 명목으로 다른 분들께 마술 봉사를 보여드리는 게 좋았습니다.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해 하면서 봉사를 진정성 있게 하시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공직자가 아닌 분들은 못 들어가는 한계성이 있어서 다른 시니어 봉사 단체도 많을 텐데 이런 걸 <인생내컷>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월 8일에는 국립세종식물원과 '붉은 말의 해'라서 승마가 나왔고, 1월 14일에는 '적토마 달려라'와 '국립박물관단지 체험'이 나왔는데 방학 동안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학부모로서 즐겁게 봤습니다. 또 제가 뮤지컬이나 연극을 좋아하지만 서울에 공연이 많아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연극제 3관왕을 수상한 연극 '검은 얼룩'을 소개해 주셔서 좋았는데요. 지인들에게 좋은 연극이 있다고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M>을 보면서 상식과 정보,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돼서 수, 목만 방송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장

이섭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승인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승인 위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성실하게 보도해 주신 대전MBC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보도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영방송이 되기를 함께 응원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1월 13일 뉴스투데이 '목숨을 건 질주 실버카 안전 관리 강화해야'라는 보도를 봤는데요. 지금 고령자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시의성 있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효도카라고 말하는 실버카에 대한 실태 현장 중심으로 보여주셔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일으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보도를 계기로 어떤 개인의 이용 형태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이동권이라든지 보행 건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개인의 이동 기구로 움직이는 부분이 맞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조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전동 휠체어를 개조한 실버카가 법적으로는 보행자로 분류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시골길에서 보도블록 위에 불법 주정차가 돼 있거나 그 안에 있는 위험한 거치물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이 실버카를 이용하면 차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분명히 짚어주시면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의 인터뷰를 보면 실버카가 낮은 속도로 운행하고 차체도 낮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삼각형으로 된 손바닥 만한 경고등을 붙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또 인터뷰 대상자분이 89세 할머니셨어요.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실버카가 보행 중심이라는 내용보다 저분이 왜 저걸 타고 다니시지 라고 생각해서 보도 내용하고 제가 느낀 감정은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위험한 질주라고 나오면서 그 차가 어른들한테는 시속 10km라고 해서 낮은 속도지만 사실 달리면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고령자한테 위험한 질주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사 제목으로서 적정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차량 배차도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분들이 하루에 3~4번 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크게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골 외곽 지역의 안전한 보행 환경에 대해서도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22일 <뉴스투데이>인데요. 전세 사기 20명의 40억 피해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처참한 감정이나 재산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피해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대전에서 이런 사기 행각들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대전이 전세 사기의 도시처럼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사회적 우려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청년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다고 현수막까지 걸어놓았는데요. 1,500명에서 2천 명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 유입이 필요한 상황인 건 이해가 가지만 연구 단지나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고 이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곳은 원룸이라든지 전세 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심각성과 더불어 대전시나 유관기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예방책

은 없는지 까지 같이 짚어주시면 젊은 세대들의 전세사기 예방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한테는 전 재산과 다름없는 데 공공 지원 제도를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충남 광역통합 이슈인데요.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결국은 광역으로 설계해서 생활로 제갈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광역은 체감을 하지만 실제 생활에 대한 설계는 전혀 안 보이는, 그러다 보니 방송에서 통합 관련된 논의의 이슈가 정치인들 정당인들 교수들의 입장들만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시민들이 왜 우리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냐는 얘기들이 점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인터뷰에서 격앙되고 논점이 흐려져 버리고,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우리한테 이득은 뭔지, 이런 차원의 접근이 방송을 통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충남 통합이 행정구역 통합의 측면도 있지만 일상생활, 복지, 환경, 주거라든지 다양하게 시민들이 누려야 될 혜택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약이 몇 개, 예산은 5조에서 20조, 이런 맥락적인 부분만 전달되다 보니까 사실상 시청자나 시민의 입장에서 많이 혼란스러운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통합됐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어떤 부분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지 그런 관계적인 부분을 보도특집이나 <시시각각>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 해도 다양한 관점에서 취재 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동시에 충족하시면서 대전MBC의 이미지도 좋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최승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욱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위원

뉴스나 유튜브를 봤을 때 대전충남의 통합 문제와 정식 명칭이 충청특별시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승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인들에 관련된 내용들만 다루는 뉴스가 많더라고요. 통합이 정치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밥벌이를 우리가 뺏는 것도 아니거든요. 통합 행정권을 가져가서 시장자리가 하나가 되던 아니면 두 자리로 분리가 되던, 그리고 시의원들의 규모가 줄어들고 국회의원이 늘어나던 이런 내용들만 많이 다루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그 혜택을 어떻게 받아들이야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등등... 이장우 시장님도 이와 관련해 투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식으로 제스처를 했다는 방송을 보긴 했는데요. 시민으로서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잘 모르는 입장이라서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통합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전 충남도 되는 건지, 맞는 건지 팩트에 대한

보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이현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많지만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충실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전충남 통합 문제 관련해서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면 광역시가 된다고 하는데 충남 전체가 시가 된다는 말인지, 이렇게 큰 규모의 시가 전 세계에 있는지, 이걸 왜 시라고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대전 충남이 통합되면 도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시가 된다는 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행정통합 이슈에 대해서는 보도국 기자들의 대다수는 지방분권이 확실히 출발하는 시작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다뤄야 되는데 정보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저희들 스스로도 뉴노멀한 상황이어서 맥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뉴스든 토론이든 계속 물량 공세를 통해서 어젠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3사가 대전 충남 행정 통합 타운홀 미팅을 TV로 녹화에서 공동 송출할 계획이었는데 국회 상황 등 변수들 때문에 일주일 순연해서 다음 주에 방송 3사가 공동 송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슈가 점화되고 여론이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진짜 행정통합이 됐을 때 특별시장이 생기고 두 명이 한 명으로 축소되고 부단체장이 4명으로 늘고 하는 것들은 알겠지만 진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 드리는 게 좋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기초단체 시군구 단위별로 천억 정도 재량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생긴다고 들었는데요. 그 천억을 해당 지역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되면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실현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현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토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은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계속 이슈를 붙잡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시청자들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쉽게 설명하는 그런 기획 보도를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쪽 에너지 문제 개선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MBC충북에서는 '전기는 지역에서 보내고 쓰레기는 지역으로 주냐'는 어젠다를 만들어 기획 뉴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이 지역에서 2036년까지는 갖고 가야 될 의제고, 그 전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고용의 문제, 지역 경제 문제 등 지속적으로 의제로 잡아서 취재하고 프로그램에서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관련 보도 준비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내부에서 담당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교복 관련 문제는 작년에 이미 열개를 크게 잡아놔서 올해 상황은 어떤지 추적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뉴스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다시보기 자막 오류는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통합 관련해서 저희가 시시각각이든 뉴스든 지속적으로 논의 구조를 끌고 갈 건데요.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기획제작부장

이섬교 위원님 <오늘M> 말씀해 주셨는데요. 12월에 4주 정도 결방을 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로 12월 첫 주까지 방송하고 좀 쉬었다가 말씀하신 1월 7일 방송이 새해 첫 방송이었는데요. 기상캐스터 의상은 기상캐스터가 직접 고른 의상은 아니고 코디가 고르는 의상인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마 새해 첫 방송이다 보니까 산뜻한 느낌으로 가려고 그런 화사한 옷을 입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날씨 상황을 고려해서 의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파민 코너 '상록 마술 봉사단'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파민 코너는 지역에 있는 여러 동호회들이나 봉사단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일종의 토크 코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시청층이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위주이다 보니 시니어 분들을 만나는 코너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 마술 봉사단에 갔었고, 그 다음 주에는 60대 어르신들이 반찬 봉사하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니어 모델들과 관련된 아이টে을 제작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한 달만 하더라도 4번 중에 3번이 시니어 아이টে을로 채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를 고려해서 시니어층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코너들을 많이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것을 별도 프로그램으로 따로 발전시키기는 인력 문제 등으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인생 내컷>도 최근 들어 문화기획자들을 많이 다루고 있긴 하지만 간간이 명인이나 장인이라든지 한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시는 시니어 분들을 많이 모셔서 주인공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인구 소멸이나 지역 소멸도 다룰 것이고, 작년에 했던 <애들은 가라 1호점>처럼 시니어가 주인공을 했던 프로그램처럼 시니어 관련 내용을 꾸준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나들이 코너 '검은 얼룩'이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월 15일 아이টে을은 올 한 해 동안 대전 지역에서 어떤 공인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문화계 라인업들을 쭉 훑어보는 코너를 제작했던 것입니다. 문화나들이 코너는 <오늘M> 전신이었던 <아침이 좋다>나 <전국시대>에서 계속해서 빼놓지 않고 제작해 왔었고요. 문화 관련 수요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지역 문화계 소식도 전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인들을 많이 발굴해서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추가 질문이나 답변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김옥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진종재 사장님 마무리 인사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옥 위원장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전체 위원님 10명의 몫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인 행정 대통합에 대해서 계속 이슈를 붙들고 정치적인 논란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2월에 또 뵙겠습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이상으로 1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